

農村 家族構造 分析

李漢基 · 韓貴貞
農村振興廳

Family Structure in Rural Korea

Lee, Han Ki · Han, Kyui Jung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ABSTRACT :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analyze the family structure in rural Korea systematically and comprehensively according to the broad concept. The data was collected from 810 rural households by interview method with questionnaire. For the analysis, family structure was divided into aspects of static structure and dynamic structure. The static structure was constructed by two components of demographic structure and typological structure. The dynamic structure was also constructed by three components of decision making structure, role structure, and dynamic relationship structure of family members. In demographic structure, family size was 4.1 persons, families with more female were 35.2%, and families with elder husband than wife were 82.5%. In the typological structure, nuclear family type with two-generation was predominant. In dynamic structure, role structure was autonomic type while conjugal power structure was compounded type with autonomic, syncratic, and husband-dominant type.

1. 머리말

가족의 구조란 가족을 하나의 사회적 조직이며 집단이라고 볼 때 이러한 가족집단의 社會的構造를 말한다. 구조라는 용어는 원래 자연과학에서 통용되던 용어였는데 Radcliffe-Brown(1940)에 의하여 처음으로 사회과학분야에 사용된 이래 가족학 분야에 도입된 것은 1960년대 Murdock(1966)에 의해서였다. 그는 가족구조를 가족원간의 사회관계로서 경제적 협력, 책임, 권리, 의무, 의존관계, 감정관계로 보았다. 우리나라에서는 李光奎의 “韓國家族의 構造分析”에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그는 사회구조를 “사회적 구성원이 직접 행하는 표현된 행위나 사회현상으로 표출된 제도가 아니라 표현 또는 표출된 행위나 제도가 그렇게 행해지고 또한 그렇게 존재되는 內的原理”로 규정함으로써 인류학적 입장에서 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가족에 적용하여 가족구조분석을 두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하나는 가족원이 각기 점유하는 지위에 따른 그들 상호간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대인관계 전반을 분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족의 유형을 파악하고 유형에 따른 가족의 제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그는 한국농촌가족의 구조를 가족원의 지위에 따른 권리, 의무, 역할 등이 어떻게, 어느 정도 배분되어 있는냐를 문제삼는 외부구조와 가족구성원간의 행위유형이 어떠한가를 문제삼는 내부구조로 구분하여 분석하기도 하였다(李光奎 : 1975). 농촌가족구조에 관한 또 다른 연구로는 庾喆仁(1980), 孔世權(1987), 변화순(1993) 등의 연구가 있는데 이들 연구에서는 가족유형(庾와 孔의 연구)이나 일부의 제한된 특성(변의 연구)만으로 가족구조를 분석코자 하였으며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가족구조에 대한 개념이나 개념구성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없었다.

이 연구에서는 가족구조를 “家族集團內에 內在

하는 構成原理”라고 廣意로 규정하고 그 개념의 구성내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류하였으며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가족구조를 분석코자 하였다. 분석을 위한 접근방법은 표본조사된 實證의 자료에 대한 計量的인 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한편 가족구조의 변화에 대한 분석과 기존 연구결과와의 비교분석은 準據資料의 미비등으로 시도하지 않았다.

2. 研究方法

가. 가족의 개념

가족에 대한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한데 대체적으로 가족의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동거여부, 혈연관계, 식생활의 공동성, 가정경제의 동일성, 가족 意識의 동질성 등을 고려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同居, 同族, 동일한 식생활을 기준으로 하여 조사시점 현재 동거하고 있는 동일한 혈연관계를 가지고 식생활을 함께하는 사람으로 하였다. 다만 6개월 이내의 비동거자는 가족으로 포함하였다.

나. 가족구조의 개념 및 구성 내용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족구조는 가족내에 존재하는 구성원리로 폭넓게 정의하였으며 개념의 구성내용은 크게 靜的인 측면과 動的인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정적인 측면은 가족원의 意思와 관계 없이 형성된 本來的 또는 血緣的인 관계구조로서 靜態的 구조라고 하였으며, 동적인 측면은 가족원들의 意思나 가치관 등에 의하여 형성된 비혈연적인 관계구조로서 可變的인 구조를 말하며 動態的 구조라고 하였다. 이를 다시 세분하여 靜態的 구조는 인구학적 구조, 類型的 구조로 구분하였으며, 動態的 構造는 의사결정구조, 역할구조, 가족원간의 動態的 관계구조로 구분하였다. 분류된 각각의 구조에 대한 분석항목은 분량관계상 가구주세대의 부부만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항목으로는 인구학적 구조에서는 가족규모, 성별구성, 가구주세대 부부의 연령 등을, 유형적 구조에서는 가족원의 결합형태와 세대수 및 가족의 구성형태를 기준으로

한 가족의 유형을 보았으며, 또한 의사결정 및 역할구조에서는 가구주세대 부부간의 의사결정구조 및 역할구조를, 가족원간의 動態的 관계구조에서는 가구주세대를 중심으로 한 夫婦關係, 姑婦關係, 부모-자녀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들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족구조의 개념구성 및 분류』

1. 靜態的 構造

－ 인구학적 구조 : 가족규모, 가족원의 성별구성, 가구주 부부의 연령

－ 유형적 구조 : 가족원의 결합형태, 세대수 및 가족구성형태 기준

2. 動態的 構造(가구주 부부중심)

－ 의사결정구조 : 부부간의 의사결정 형태

－ 역할구조 : 부부간의 역할배분 형태

－ 가족원간의 동태적 관계구조 : 부부관계, 고부관계, 부모-자녀관계

다. 자료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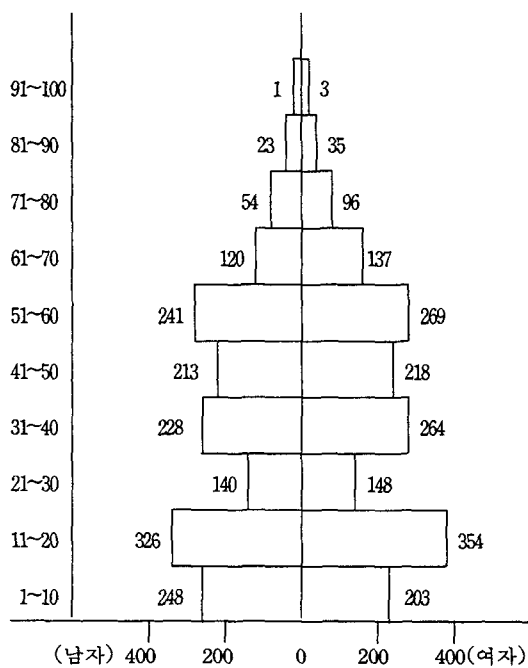
이 연구를 위한 자료는 면단위 이하의 농촌가구 816가구를 대상으로 사전에 작성된 조사표에 의한 면접조사 방법에 의하여 수집되었다. 표본의 추출은 전국 136개의 군에서 행정순위로 보아 중앙에 해당하는 면과 리를 선정하고 각 리에서 6가구씩을 系統抽出方法에 의하여 추출하였다. 이 조사는 1992년 6월 22일 부터 7월 1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면접조사는 해당군의 생활지도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면접대상자는 가구주세대의 부인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가구주세대의 부인이 없는 경우는 가족원 중에서 응답이 가능한 성인으로 하였다. 조사대상가구의 직업은 농촌가구의 특성상 대부분(84%)이 농업이었으며 영농유형은 米麥營農을 하는 농가가 대부분(68%)이었다.

라. 자료분석

자료의 분석은 수집된 자료 가운데 분석이 곤란한 부실한 자료 6건을 제외하고 810가구에 대한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의 처리는 농촌진흥청의 AGRISP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 되었으며 분석에 이용된 통계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 등 단순한 記述的 통계 방법만을 이용하였다.

3. 結果 및 解釋

가족구조분석에 앞서 먼저 조사대상가구의 가구원들에 대한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분포는 일반적인 인구피라미드 구조에 비해 20대에서 40대의 젊은 층이 적은 왜곡된 피라미드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그림 1).



〈그림 1〉 성별, 연령별 인구분포

그중에서도 특히 20대의 연령층이 아주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세이하의 어린이도 10대 청소년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20~30대의 젊은 부부가 적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해석된다. 남녀간의 성별로 보면 10세이하에서는 남자가 많으나 10대 이후부터는 점차 여자가 많아지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남녀간의 불균형이 크게 나타난 연령층이 10대, 30대, 50대, 70대로 어느정도 규칙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들을 扶養率과 老齡化指數로 분석해 보면 총부양을 50.0%에 노년부양을

15.5%, 노령화지수 45.1%(남자 33.6, 여자 57.0%)로 조사대상인구집단의 노령화 및 여성화 현상을 볼 수 있다.

가. 靜態的 構造

1) 인구학적 구조

조사대상가구의 전체 가족원수는 3,321명으로 가족당 평균 4.1명이었다. 가족규모의 분포를 보면 〈표 1〉과 같이 3~4명이 38%로 가장 많았으며 단독 또는 2명이 사는 가족도 상당수(22.8%) 있었다.

가족원의 성별구성을 보면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같은 가족이 38.4%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많은 가족이 30.6%였다(표 2). 이밖에 남자 또는 여자만 있는 가족이 4.5%였는데 이 가운데서도 남자만 있는 가족보다 여자만 있는 가족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분포로는 가구주세대 부부(가구주가 속해있는 세대의 부부를 말하며 1~4세대 중 어느 한세대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가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가구주 또한 남편만을 의지하지는 않음)의 연령만을 보았는데(표 3), 남편의 연령은 50대가 가장 많았고 부인의 연령은 3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편과 부인의 연령구성을 보면 일반적인 현상으로 이해되고 있는 남편의 연령이 부인의 연령보다 많은 경우가 역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그 반대로 부인의 연령이 남편보다 많은 일반화되지 않은 부부의 경우도 3.7%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가족규모

	1~2명	3~4명	5~6명	7~8명	9명이상	계
f	185	308	246	68	3	810
%	22.8	38.0	30.4	8.4	0.4	100

〈표 2〉 가족원의 성별 구성

	남>여	남=여	남<여	남자만	여자만	계
f	215	311	248	7	29	810
%	26.5	38.4	30.6	0.9	3.6	100

〈표 3-1〉 가구주세대 남편의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비해당	계
f	13	185	207	236	93	24	52	810
%	1.6	22.8	25.6	29.1	11.5	3.0	6.4	100

〈표 3-2〉 가구주세대 부인의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비해당	계
f	57	256	216	222	47	9	3	810
%	7.0	31.6	26.7	27.4	5.4	1.1	0.4	100

〈표 3-3〉 가구주세대 부부의 연령구성

	남편=부인	남편<부인	남편>부인	비해당	계
f	57	668	30	55	810
%	7.0	82.5	3.7	6.8	100

2) 유형적 구조

가족의 유형은 여러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가족원의 결합형태, 세대수 및 가족구성형태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보았다. 가족원의 결합형태를 기준으로 보면 부부가족이 60.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직계가족으로 32.2%였다(표4).

〈표 4〉 가족원의 결합형태를 기준으로 본 가족유형

	부부가족	직계가족	확대가족	단독가구	계
빈도	486	261	37	26	810
%	60.0	32.2	4.6	3.2	100

〈표 5-3〉 2세대형 가족구성형태

	빈도(%)	夫	婦	未婚子女	兄弟姊妹	子	子婦	姪	女	婿
B1형	320(39.5)	○	○	○	×	×	×	×	×	×
B2형	3(0.4)	○	×	○	×	×	×	×	×	×
B3형	25(3.1)	×	○	○	×	×	×	×	×	×
B4형	2(0.2)	○	○	○	○	×	×	×	×	×
B5형	22(2.7)	×	○	×	×	○	○	×	×	×
B6형	1(0.1)	○	○	○	×	×	×	○	×	×
B7형	7(0.9)	○	○	×	×	○	○	×	×	×
B8형	1(0.1)	×	○	×	×	○	×	×	×	×
B9형	2(0.2)	○	×	×	×	○	○	×	×	×
B10형	8(1.0)	○	○	×	×	○	○	×	×	×
B11형	1(0.1)	○	○	○	×	×	×	×	○	○
B12형	1(0.1)	×	○	×	×	×	○	×	×	×

한편 세대수를 기준으로 보면 〈표 5-1〉과 같이 2세대형이 48.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3세대형(29.6%)이 많았다. 이들을 다시 세대수별로 가족구성형태를 기준으로 세분하여 보면 〈표 5-2~5-5〉와 같다. 가족중에서 제일 윗세대인 부부를 중심으로 가족구성형태를 유형화해 보면 1세대형에서는 부부만이 있는 A1형이 17.0%로 가장 많았으며 2세대형에서는 부부+미혼자녀로 구성된 B1형이 39.5%로 가장 많았다. 3세대형에서는 婦(母)+기혼자녀 부부+손자로 구성된 C5형이 15.7%로 가장 많았으며 4세대형에서는 夫(父)+기혼자녀 부부+기혼손자 부부+증손으로 구성된 D1형이 가장 많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가장 대표적인 가족구성형태는 夫婦+미혼자녀로 구성된 2세대의 B1형이었다.

〈표 5-1〉 세대수를 기준으로 본 가족유형

	1세대형	2세대형	3세대형	4세대형	계
빈도	164	393	240	13	810
%	20.3	48.5	29.6	1.6	100

〈표 5-2〉 1세대형 가족구성형태 (n=810)

	빈도(%)	夫	婦	兄弟姊妹
A1형	138(17.0)	○	○	×
A2형	20(2.5)	×	○	×
A3형	6(0.7)	○	×	×

농촌 가족구조 분석

〈표 5-4〉 3세대형 가족구성형태

(n=810)

	빈도(%)	夫	婦	子	子婦	孫子	1代兄弟	2代兄弟	2代傍系	子婦父母
C1형	65(8.0)	○	○	○	○	○	×	×	×	×
C2형	1(0.1)	○	○	×	○	○	×	×	×	×
C3형	2(0.2)	○	○	×	×	○	×	×	×	×
C4형	13(1.6)	○	○	×	○	○	×	×	×	×
C5형	127(15.7)	×	○	○	○	○	×	×	×	×
C6형	1(0.1)	×	○	×	○	○	×	×	×	×
C7형	2(0.2)	×	○	○	○	×	×	○	○	×
C8형	12(1.5)	○	○	○	○	○	×	○	×	×
C9형	7(0.9)	×	○	○	○	○	×	○	×	×
C10형	1(0.1)	×	○	×	×	○	×	○	×	×
C11형	1(0.1)	○	×	○	○	○	×	○	×	×
C12형	1(0.1)	×	○	○	○	×	×	○	○	×
C13형	1(0.1)	○	○	○	○	○	×	○	○	×
C14형	4(0.5)	×	×	○	○	○	×	×	×	○
C15형	1(0.1)	○	×	○	○	○	○	×	×	×
C16형	1(0.1)	○	×	○	○	×	○	×	○	×

〈표 5-5〉 4세대형 가족구성 형태

(n=810)

	빈도(%)	夫	婦	子	子婦	孫子	孫子婦	曾孫	3代兄弟
D1형	5(0.6)	○	×	○	○	○	○	○	×
D2형	1(0.1)	×	○	○	○	○	○	○	×
D3형	1(0.1)	×	○	○	○	×	×	○	×
D4형	1(0.1)	×	○	○	×	○	○	○	×
D5형	1(0.2)	○	×	○	×	○	○	○	×
D6형	1(0.1)	×	○	×	○	○	○	○	×
D7형	2(0.2)	×	○	○	○	○	○	○	○

나. 動態的 構造

1) 의사결정 구조

의사결정구조에서는 가구주세대 부부간의 의사결정 형태만을 보았다. 여기서의 부부는 가구주세대의 부부만으로 한정하였다. 의사결정구조에서는 의사결정주제로 자녀수결정, 가전제품구입 등 7가지를 보았으며 의사결정 형태는 남편과 부인간의 의사결정 참여정도에 따라 5가지로 구분하였다. 먼저 부부간의 의사결정 주제별로 의사결정상태를 보면 〈표 6-1〉과 같다. 자녀수 결정에서는 부부가 함께 결정한다는 응답이 6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가전제품구입 결정에서는 부부가 함께 상

의하여 결정하지만 부인의 주장이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부부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우보다 약간 많았다. 생활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부부가 함께 상의하여 결정하지만 부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가전제품 구입을 결정할 때와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저축방법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부부공동으로 상의하여 결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남편의 주장이 반영되는 경우가 상당수(30%) 있었다. 한편 TV의 프로를 선택할때는 부부함께 상의하여 결정하는 경우보다 남편이 전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더 많아 남편의 의사결정권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표 6-1〉 부부간의 주제별 의사결정형태

대 상	상의없이 남편혼자	상의하나 남편주장	부 부 합 계	상의하나 부인주장	상의없이 부인혼자	계	US	JS
자녀수 결정 f/(%)	40 (5.4)	112 (15.1)	506 (68.0)	47 (6.3)	39 (5.2)	744 100	2.90	2.57
가전제품 구입 f/(%)	32 (4.3)	128 (17.3)	390 (52.7)	161 (21.8)	29 (3.9)	740 100	3.04	2.44
집, 땅 구매 f/(%)	98 (13.2)	351 (47.1)	288 (38.7)	5 (0.7)	3 (0.4)	745 100	2.28	2.25
생활비 결정 f/(%)	35 (4.7)	148 (19.8)	284 (38.1)	221 (29.6)	58 (7.8)	746 100	3.16	2.26
저축방법 결정 f/(%)	72 (9.7)	223 (30.2)	324 (43.8)	94 (12.7)	26 (3.5)	739 100	2.70	2.31
TV프로 선택 f/(%)	152 (20.3)	242 (32.4)	227 (30.4)	94 (12.6)	32 (4.3)	747 100	2.48	2.06
농사작목 결정 f/(%)	178 (25.9)	318 (46.2)	140 (20.3)	37 (5.4)	15 (2.2)	688 100	2.12	1.92

US : Unilateral Score(일방참여점수) JS : Joint Score(공동참여점수)

- 1 - 상의없이 남편혼자 결정 -1
- 2 - 상의하나 남편주장대로 결정 -2
- 3 - 부부함께 결정 -3
- 4 - 상의하나 부인주장대로 결정 -2
- 5 - 상의없이 부인혼자 결정 -1

農事作目を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TV프로를 선택하는 경우보다도 더욱 남편의 의사결정권이 큰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의사 결정형태 5가지를 5점척도로 점수화 하여 그 평균 점수를 분석해 보았다. 여기서 점수부여방법은 일방적인 권위의 정도를 알기 위한 5점만점 방법(US : Unilateral Score)과 공동참여정도를 알기위한 3점만점 방법(JS : Joint Score)의 두가지로 분석하였다. 一方參與點數(US)를 보면 7개 의사결정 주제를 전체적으로 보면 대체로 3.0이하로서 남편의 결정권한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제별로 보면 결정력이 남편보다 높은 것은 생활비결정과 가전제품구입이었으며, 남편의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되는 것은 농사작목의 결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부부간에 공동참여하는 정도는

자녀수결정이 2.57로 가장 높았고 농사작목 결정이 1.92로 가장 낮았다.

이러한 의사결정형태에 따라서 가족유형을 분류해 보면 〈표 6-2〉와 같다.

〈표 6-2〉 부부간의 의사결정 유형

	남 편 우위형	자 율 형	일 치 형	부 인 우위형
RAS 범위	7~17	18~24	18~24	25~35
SAS 범위	7~17	7~17	18~21	7~17
빈 도	231	261	232	25
%	30.8	34.9	31.0	3.3

RAS(Relative Authority Score : 상대적권위점수)

: 7문항×5점(US)=35점(만점)

SAS(Shared Authority Score : 공유된 권위점수)

: 7문항×3점(JS)=21점(만점)

농촌 가족구조 분석

가족유형은 Wolfe가 제시한 相對的權威(RA : Relative Authority)와 共有된 權威(SA : Shared Authority)의 정도에 따라서 분류하였다(李漢基, 1977). 상대적권위는 7개 의사결정주체의 일방참여점수(US)를 모두 합하여 상대적권위점수(RAS : Relative Authority Score)로 나타내었으며 공유된 권위는 7개 의사결정주체의 공동참여점수(JS)를 모두 합하여 공유된 권위점수(SAS : Shared Authority Score)로 나타내었다. 따라서 RAS는 35점 만점이며 SAS는 21점 만점이 된다. 이러한 RAS와 SAS를 이용하여 4가지의 가족유형으로 분류해 보면 自律型이 34.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一致型和 남편우위형이 거의 같은 31%를 나타내었다. 반면 부인우위형은 3.3%로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역할구조

역할구조도 의사결정구조와 마찬가지로 부부간의 역할배분의 관해서만 살펴보았다. 역할배분에 대한 주제는 예금통장관리, 생활비관리, 집안이나 이웃에 대해 부조, 이부자리개기, 바깥청소, 기구의 수리, 발매기 등 5가지 영역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보면 <표 7-1>과 같이 예금통장관리는 주로 부인이 하는 경우가 34.6%로 가장 많았으나 주로 남편이 하는 경우와 항상 남편이 하는 경우도 각각 28.6%, 24.4%로 이들을 모두 합하면 과반수가 넘는 경우가 남편이 많이 관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대조

적으로 생활비관리는 주로 부인이 하는 경우가 75.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집안이나 이웃에 대한 부조는 주로 남편이 하는 경우가 45.6%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항상 남편이 하는 경우로 대체로 남편이 많이 관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부자리를 개는 일은 주로 부인이 하는 경우가 61.1%로 과반수를 차지하였으며, 바깥청소는 주로 부인이 하는 경우가 51.8%로 가장 많았으며 주로 남편이 하는 경우는 18.6%였다. 또한 집안의 기계기구 수리는 주로 남편이 하는 경우가 49.3% 항상 남편이 하는 경우가 35.7%로 대부분 남편이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매기는 주로 부인이 하는 경우가 57.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역할배분형태 5가지를 5점 尺度로 점수화 하여 그 평균점수를 분석해 보았다. 여기서 점수부여방법은 의사결정형태의 점수부여방법과 같이 두가지로 하여 일방적인 참여점수(US)와 공동참여점수(JS)의 두가지로 분석하였다. 일방참여점수(US)를 보면 7개 역할영역가운데서 “생활비관리”가 3.69로서 부인의 역할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기계기구의 수리”는 1.92로 남편의 역할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참여점수(JS)를 보면 “발매기”의 역할에서 가장 높았으며 “기계기구의 수리” 역할에서 가장 낮았다.

<표 7-1> 부부간의 역할배분 형태

문항	항상 남편	주로 남편	공동(각자)	주로 부인	항상 부인	계	US	JS
예금통장관리 f/(%)	180 (24.4)	211 (28.6)	74 (10.0)	256 (34.6)	18 (2.4)	739 100	2.62	1.83
생활비관리 f/(%)	40 (5.3)	45 (6.0)	60 (8.0)	564 (75.2)	41 (5.5)	750 100	3.69	1.97
집안, 이웃 부조 f/(%)	197 (26.3)	340 (45.4)	139 (18.6)	59 (7.9)	14 (1.9)	749 100	2.14	1.90
이부자리개기 f/(%)	27 (3.6)	63 (8.4)	126 (16.8)	458 (61.1)	76 (10.1)	750 100	3.66	2.03
바깥청소 f/(%)	41 (5.5)	139 (18.6)	127 (17.0)	388 (51.8)	54 (7.2)	749 100	3.37	2.04
기구의 수리 f/(%)	267 (35.7)	368 (49.3)	44 (5.9)	43 (5.8)	25 (3.3)	747 100	1.92	1.67
발매기 f/(%)	17 (2.5)	31 (4.5)	180 (26.4)	394 (57.8)	60 (8.8)	682 100	3.66	2.15

US : Unilateral Score(일방참여점수) JS : Joint Score(공동참여점수)

이러한 부부간의 역할배분형태에 따라서 가족유형을 분류해보면 <표 7-2>와 같다. 가족유형의 분류기준은 의사결정형태에 따른 가족유형의 분류와 마찬가지로 상대적권위점수(RAS)와 공유된 권위점수(SAS)의 두가지로 하였다. 이러한 RAS와 SAS를 이용하여 4가지의 가족유형으로 분류해 보면 자율형이 76.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남편주도형이 12.7% 부인주도형이 8.7%였으며 일치형은 거의 없었다. 의사결정형태에 의한 가족유형이 自律型, 一致型, 男便優位型이 비슷한 비율을 보인것과는 대조적으로 역할배분으로 남편과 부인의 영역이 대체로 구분되어 있어 서로 자기의 영역을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7-2> 부부간의 역할배분 유형

	남편 주도형	자율형	일치형	부인 주도형
RAS범위	7~17	18~24	18~24	25~35
SAS범위	7~17	7~17	18~21	7~17
빈도	95	572	17	65
%	12.7	76.4	2.3	8.7

RAS(Relative Authority Score : 상대적권위점수)

: 7문항×5점(US)=35점(만점)

SAS(Shared Authority Score : 공유된 권위점수)

: 7문항×3점(JS)=21점(만점)

3) 가족원간의 動態的 關係構造

가족원간의 동태적 관계는 부부관계와 姑婦關係, 부모-자녀(취학자녀)관계만으로 국한하여 보았으며 그 내용도 갈등-적응관계를 중심으로 보았다.

부부간의 관계를 보면 <표 8>과 같다. 부부싸움을 하는 빈도는 가끔 또는 자주한다는 경우가 55% 정도로 나타났으며 부부싸움을 하는 방법을 보면 부인은 참고 견디는 경우가 38.6%, 현장을 회피하는 경우가 31.4%로 대체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난데 반해 남편은 큰소리를 지르는 경우가 30.7%로 가장 많았다. 부부싸움후 화해를 하는 방법으로는 시간이 해결해준다고 응답한 경우가 50.3%로 가장 많았다.

<표 8> 부부간의 관계

특성 및 구분	빈도	%
1. 부부싸움 빈도	748	100
1) 자주 한다	48	6.4
2) 가끔 한다	368	49.2
3) 거의 안한다	332	44.4
2. 부부싸움방법(부인)	746	100
1) 인내형	288	38.6
2) 현장회피형	234	31.4
3) 고성형(高聲型)	166	22.2
4) 욕설남용형	13	1.7
5) 기타	45	6.0
3. 부부싸움방법(남편)	747	100
1) 인내형	199	26.6
2) 현장회피형	198	26.5
3) 고성형(高聲型)	229	30.7
4) 욕설남용형	42	5.6
5) 물건과괴형	25	3.4
6) 구타형	11	1.5
7) 기타	43	5.8
4. 부부싸움후 화해방법	746	100
1) 남편이 먼저 사과	185	24.8
2) 부인이 먼저 사과	153	20.5
3) 시간이 지나면 화해	375	50.3
4) 기타	33	4.4

姑婦間의 관계에서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좋은편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38.1%였다. 살림살이의 주도권은 63.0%가 며느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姑婦間의 대화는 41% 정도가 많이 한다고 응답하였다. 姑婦間에 갈등이 발생하였을때 해결하는 방법은 양쪽모두 참고 견디는 인내형이 가장 많았으나 며느리의 경우는 인내형이 약 1/3인데 비하여 시어머니의 경우는 2/3 정도였으며 고성책망형이 27.0%로 그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또한 가장 높은 불편 불만사항은 시어머니의 간섭이나 잔소리(48.4%)로 나타났다(<표9>).

농촌 가족구조 분석

〈표 9〉 姑婦間的 관계

특성 및 구분	빈도	%
1. 姑婦間的 관계	289	100
1) 좋은편	110	38.1
2) 보 통	176	60.9
3) 나쁜편	3	1.0
2. 살림살이 주도권	289	100
1) 며느리	182	63.0
2) 시어머니	71	24.6
3) 공동(각자)	36	12.5
3. 姑婦間的 대화	287	100
1) 많이 한다	117	40.8
2) 보 통	118	41.1
3) 적게 한다	52	18.1
4. 갈등해소방법(媿母)	289	100
1) 인내형	96	33.2
2) 고성책망형	78	27.0
3) 설득형	57	19.7
4) 현장회피형	39	13.5
5) 기타	19	6.6
5. 갈등해소 방법(子婦)	289	100
1) 인내형	193	66.8
2) 고성책망형	9	3.1
3) 설득형	24	8.4
4) 현장회피형	46	15.9
5) 기타	17	5.9
6. 불평, 불만사항	289	100
1) 부부생활에 지장	14	4.8
2) 자녀교육에 지장	23	8.0
3) 간섭, 잔소리	140	48.4
4) 경제권 不 移 讓	28	9.7
5) 기타	84	29.1

부모-자녀와의 관계를 보면 〈표 10〉과 같다. 자녀들과의 대화를 보면 아버지 보다는 어머니와 더 많이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훈계하거나 지도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거의 같은 비율로 나타났다. 자녀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體罰을 가하거나 질책을 하는 경우가 48.6%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高聲叱責型으로 34.0%였다.

자녀들과의 외식빈도는 약 절반이 1년에 한번이상 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자녀들과의 갈등요인은 학교성적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47.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부모-자녀관계(未就學子女의 경우)

특성 및 구분	빈도	%
1. 자녀들과의 대화(母)	578	100
1) 많이 한다	302	52.2
2) 보 통	220	38.1
3) 적게 한다	56	9.7
2. 자녀들과의 대화(父)	561	100
1) 많이 한다	210	37.4
2) 보 통	222	39.6
3) 적게 한다	129	23.0
3. 자녀훈계, 지도자	579	100
1) 어머니	197	34.0
2) 아버지	203	35.1
3) 함께	179	30.9
4. 잘못에 대한 처벌	580	100
1) 육체적 체벌형	11	1.9
2) 고성질책형	197	34.9
3) 체벌 또는 질책형	282	48.6
4) 기 타	90	15.5
5. 자녀들과의 외식	578	100
1) 거의 안한다	295	51.0
2) 1년에 한두번	196	33.9
3) 한달에 한두번	87	15.0
6. 자녀와의 갈등요인	579	100
1) 학교성적	27	4.7
2) 용 돈	71	12.3
3) 친구관계	51	8.8
4) 귀가시간	48	8.3
5) 기 타	132	22.8

4. 分析結果要約

이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가족 구조를 보다 廣意의 개념으로 규정하여 종합적으

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위한 자료는 면단위 이하의 농촌가구 810가구를 질문지에 의한 면접조사 방법에 의하여 수집하였으며, 가족구조는 크게 靜態的 構造와 動態的 構造의 2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정태적 구조에서는 먼저 인구학적 구조를 분석하였는데 가족규모는 4.1명이었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많은 가족이 남자가 여자보다 많은 가족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부부의 연령구성은 남편이 부인보다 많은 경우가 82.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가족의 유형적 구조는 가족원의 결합형태를 기준으로 보면 부부가족이 60%로 가장 많았고 세대수 및 가족구성형태를 기준으로 보면 “夫婦+미혼자녀”로 구성된 2세대의 B1형이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나타났다.

動態的 구조에서는 가구주 부부간의 의사결정 구조가 자율형, 일치형, 남편우위형이 비슷한 분포를 보인 반면에 부부간의 역할구조는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가족원간의 동태적 관계구조에서는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가 과반수를 넘었으며, 부부싸움을 하는 방법은 남편은 큰소리를 지르며 부인은 참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었다. 姑婦間에는 갈등해소방법으로 시어머니는 대체로 소리를 지르거나(27%) 인내하는 경우(33%)가 가장 많았고 며느리는 대부분(67%) 이 참고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의 관계에서는 자녀들과의 대화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더 많이 하였으며 자녀와의 가장 큰 갈등요인은 학교성적(4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농촌가족은 첫째 : 가족당 인원이 감소하고 있으며, 남자보다 여자의 비율이 높고 부인의 연령보다 남편의 연령이 많은 인구학적 구조와, 둘째 : “부부+미혼자녀”로

구성된 부부가족이 대표적인 가족결합형태인 유형적 구조, 셋째 : 자율형과 일치형, 남편우위형이 혼재되어 있는 의사결정 구조, 넷째 : 상당히 자율적인 부부간의 역할구조, 다섯째 : 부부간이나 姑婦間의 갈등해소 구조는 忍耐型이 主種을 이루는 가족원간의 동태적 관계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 고 문 헌

- 이광규. 1976. 한국가족의 구조분석, 일지사.
- 이한기. 1977. 농촌가족내 부인의 의사결정참여에 관한 연구, 서울대석사논문.
- 유철인. 1981. 농촌가족구조의 가족유형론적 분석, 농촌경제 4권 2호.
- 박민선. 1984. 농가의 의사결정과 부녀자의 역할, 농협조사월보 351호.
- 공세권 등. 1987. 한국 가족구조의 변화, 한국인구보건연구원.
- 정지용. 1989. 한국의 농촌-그 구조와 개발, 서울대학교출판부.
- 변화순. 1993. 한국농촌가족구조와 기능의 변화, 농촌사회 3집.
- 설동훈. 1993. 한국농촌의 가족구성과 생활실태, 농촌사회 3집.
- 한경혜등. 1993. 농가주부의 의사결정 참여, 역할부담과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농촌생활과학회지 4권 1호.
- Murdock, G.P., 1966. Social Structure, N.Y.: Free Press
- Radcliffe-Brown, A.R., 1940. On Social Structure, Journal of Royal Anthyropological Institute. 70(1).